고쿠라쿠지(極樂寺) 산문(山門) 무나후다(상량패) 1장

산문(山門)은 3칸 1호 4각문이며, “저속일우(岨俗一隅)”에는 ‘대문(大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무나후다(상량패)에서 볼 수 있듯이 겐로쿠 11년(1698)에 지어졌으며, 도리 길이 3.28m, 대들보 길이 2.11m, 지붕은 맞배지붕 2채가 연결된 동판지붕이다.

문 입구의 본주(本柱)는 둥근 기둥, 다른 기둥은 면을 깎은 각주(角柱)로 되어 있다.

공포(拱包, 처마 끝의 무게를 받치는 나무)는 데구미(出組) 형식으로 하였고, 나카조나에(中備)는 혼카에루마타(本蠶股, 박공 위의 개구리 뒷다리 형상의 조각)를 넣었으며, 박공 벽에는 이타카에루마타(板蠶股)를 사용, 박공 장식은 홍량 대병속(虹梁大瓶束)으로 했으며, 대병속 하단에 깊게 조각된 장식이 붙어 있다.

포석은 화강암으로, 가운데는 건물과 평행하게 배열하고, 그 양쪽은 줄눈을 45도 비스듬히 배열하는 이른바 선종문양이 사용되어 있다.

이 포석 형태는 “저속일우(岨俗一隅)”의 그림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해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전체적으로 간소하고 잘 조화된 느낌의 건축이다.

무나후다(상량패)는 가로 10.4cm 세로 70cm 두께 1.8cm, 앞면에 ‘봉건립원통대문(奉建立圓通大門) 겐로쿠 11년 무인년 초봄 길일(元祿拾壹曆戊寅孟春吉辰) 경백(敬白)’, 뒷면에는 목수 이름과 봉납자 이름이 적혀 있다.

‘기소무라 문화재 탐방’

(1986.3.25 발행 기소무라 교육위원회)에서